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9.6.13.(목) 10:30~10:35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이재은 교수님, 이영한 교수님,
LG전자 김민교 상무님,
제넥신社의 원용민 전무님,
그리고,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님,
김의형 회계기준원 원장님,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님,
문현숙 여성회계사회 회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두 교수님께서도 작년에 운영하였던
「회계감독 선진화 TF*」(18.3월~10월)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長),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민간전문가 등

II. 추진 배경

다가오는 초지능·초연결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금융시스템 전반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모험자본 육성과 경쟁 촉진,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을
보다 혁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은
투자대상이 내포하는 위험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경영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인내심 있는 모험자본의 육성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기업회계정보는
혁신금융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는 험난한 등정에서 빠질 수
없는, ‘셰르파(sherpa)’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믿음직한 셰르파가 히말라야의 산세(山勢)와 지형을
등반가에게 미리 알려 주듯이,
믿을 수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투자자가 기업가치와 투자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과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투자자금이
풍족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회계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왔습니다.

2017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과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외부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회계개혁의 목표는 우리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과
이를 가까이서 감시해야 하는 외부감사인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께 높여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①해석이나 지침(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②감독이 사후적발·제재에 치중하여 운영되어 온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로 ③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커진 만큼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감사품질에 대한 감독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우리 기업의 토양에 착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 모두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감독당국의 활동은 기업과 감사인에게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업무수행방식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느슨한 감독은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과도한 감독은 외부감사의 보수화 등
시장의 과잉반응을 불러 일으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뺏’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감독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Ⅲ. 회계감독 선진화 기본방향

그 동안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전예방·지도 중심

첫째, 감독방식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선진국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 회계감독은 사후적발·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지(抑止)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선진 시스템 도입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선진국에서는 ‘지도’로 종결하는 회계오류를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키워온 건 아닌지 반성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장사 감리주기*가
시장에 긴장감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긴 상태에서
사후적발 방식이 신속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 지난 3년(2016~18년) 기준 금감원의 국내 상장사 감리주기는 20년

또한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이 지속될 경우
시장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보다
감독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의존하려는 경향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 시장의 전문성 존중

둘째,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최근 기업현장, 학계 등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국내 시장에
조속히 정착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체계로 알려진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회계처리 판단에 있어서도 기업이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고
제재를 확정하는 규정 중심 규율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감독기관은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제감사기준이
‘리스크 기반(risk-based) 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개별기업의 리스크가 큰 분야를 판단하여
해당 부문에 감사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도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방식이 정착된다면
투자자와 기업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부감사인은 잘 만들어진 감사계획에 따라
연중 기간별로 업무량을 분산,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이슈에 대해 보다 일찍, 보다 충실하게
기업과 상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감사인 간에 성실한 대화를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감사계약이 만들어지면,
감사보수에 대한 기업의 불만도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연말결산 직전에 비적정 감사의견이 갑자기 공표될 경우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불측의 피해도
줄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감독 효율성 제고

셋째, 시장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감독조직,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하여
선진 감독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감독자원이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감독자원을 단시일내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감독시스템 개선을 감독자원 확대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①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 점검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②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 스스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활용함으로써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III. 당부사항

회계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기업, 회계법인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첫째,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낯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감독기관부터 스스로 변화해야 하며, 변화의 폭은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기존의 익숙한 방식에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면
회계개혁은 “시지푸스의 바위”와 같이
우리가 계속 안고가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감독관행이나 조직문화를
단번에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와 변화 방향이 각 기관의 조직
내에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과의 소통 강화

둘째, 현장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기업현장에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견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회계개혁의 여파로 외부감사가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은 비적정의견을 받을 경우 입게 될 피해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는 상장폐지를, 비상장사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사보수 상승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개혁의 반대세력이나 낙오자의
불만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금융위에서는 과거부터
“선도중진(先導中進)”의 업무자세를 강조해 왔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두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 나갈 책무가 있지만,
실행과정에서 낙오자를 놓치지 않도록
대열의 중간에서 협력과 조화를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야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시하고,

* 회계법인이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투입 필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제재할 것임을 강조 등(2.14)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6개월 → 1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의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기존의 조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관계기관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고민해나겠습니다.

3.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를 당부합니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 여정에서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one-voice)를 낼 수 있어야
시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업도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회계처리를 위한 판단에 필요한 절차(due process)를
무시한 채로 행해지는 자의적인 회계처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감사인들도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마무리 말씀

이번 방안은 과거 우리 회계감독에 대한 솔직한 반성문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향한 출사표라고 생각합니다.

“유지가 아닌 변화”가 우리의 실존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도록 유혹하는 ‘익숙한 악마(familiar devil)’에
굴복하여 좁은 동굴 안에서 맴돌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굳건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계개혁의 길고도 쉽지 않은 여정을
앞으로도 함께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